

포천사회 知識人 ⑨

대진대학교 박진태 교수

지역연구 抱川市民이 연구주체로 나서야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지역연구의 중심 역할 기대

“포천시는 물론 경기북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인문학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2001년 창립한 겨레문화연구소를 인문학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 지난해 12월15일 포천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제4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박진태(49) 교수는 인문학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포천사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교수는 경북 문경 집촌읍 호서남 초등학교, 문경중학교를 나와 서울 해화동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대학원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교수는 한국근대사를 전공했으며 사회경제사, 운동사, 변혁운동사, 사상사 등을 세부적으로 연구했으며 지난 1997년 대진대학교에 부임했다.

“생각하며 살다 더불어서 살자”를 생활신조로 삼아 활동해온 박 교수는 한국사회경제사 가운데서 근대농업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조선 후기 이래의 국관유지로 볼 수 있는 역포, 둔포, 목장포의 성립과 변천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의 농민의 존재형태와 분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최근에는 조선이 근대국가로 이행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기별 개혁내용 중에서 토지변혁에 관한 문제에 접근해 연구중이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 시기 근대적 관료제와 재정제도 및 새로운 지방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착수된 국가에 의한 국유지조사로서의 읍미사관, 대한제국시기의 광무사검, 그리고 일제 통감부시기의 역둔토의 확대개편과 실지조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혁전반이 지주적 입장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던 토지에 관한 조사와 지세제도에 관한 개혁의 성격은 당시 제국주의적 침략문제를 결부하여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의 궁방전과 민유지문제, 그리고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까지 연결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개항기 이후 근대변혁운동과도 관련하여 유교식인의 동향과 농민층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관해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및 중앙과 관련한 역사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 혹은 지방사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다양한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면 경기북부 지역연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겨레문화연구소장으로 제3회 학술심포지엄을 지난 2004년12월18일 ‘포천학’에 대한 영역별 접근을 위해 어문학을 비롯한 역사, 철학, 종교, 교육, 문헌정보 등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연구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는 ‘포천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로 ▲포천지역 지명조사의 현황과 과제(이근영,국어학) ▲포천지역 설화자료 조사와 현황과 과제(이병찬,국문학) ▲포천의 서원과 인물의 학문사상 및 연구방향(권인호,철학) ▲포천 지역사 자료발굴 현황과 과제(박진태,역사학) ▲포천 지역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박경자, 역사학) ▲포천지역 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순자, 교육학) 논의했다.

겨레문화연구소를 인문학연구소로 바꾼 2005년12월에 개최한 제4회 학술심포지엄은 ‘포천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주제로 ▲포천지역 설화의 특징(이병찬,장운수) ▲조선전기 이후 포천지역 유학자들의 생애와 학문(권인호, 조한석) ▲포천지역 종교인물탐

구(이경원, 고남식) ▲조선 후기 근기지역의 장시 발달과 송유점(박진태, 최규진) ▲포천역사와 문화재 활용방안(박경자, 나해정) ▲도농복합도시의 공공도서관 설립과 운영(이만수, 이상복) ▲포천지역 문화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김순자, 유경훈) 문제를 다뤘다.

박 교수는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 1분과장을 역임했고 성대사학회 연구간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선사학회 편집이사, 경제사학회 회원, 한국사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박 교수는 석사학위논문으로 「조선 후기 衙門田田에 관한 고찰, 1884,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한말 驛屯土調查의 歴史的 性格 研究, 1995, 성균관대학교」를 발표했다.

그 밖의 논문으로 ▲개신유학계열의 外勢 對應樣式(1990) ▲대한제국 초기의 국유지조사(1995) ▲1984년 경상도지역의 농민전쟁(1995) ▲갑오개혁기 국유지조사의 성격(1997) ▲일제 통감부시기의 역둔토 실지조사(1998) ▲1904~1907년 황실제도 정리에 관한 소고(1992) ▲한말 역둔토 조사를 둘러싼 분쟁사태-경기도 양주군을 중심으로(2000) ▲통감부시기의 황실재산의 국유화와 역둔토 정리(2002) ▲제국주의와 동아시아 문화의 위기(2003) ▲일제의 역둔토 실지조사와 분쟁지 문제(2004) ▲조선 후기 근기지역의 시장 발달과 송유점(2005) 등이 있다.

박 교수의 저서로는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민음사, 1995) ▲1884년 농민전쟁연구(4)(역사비평사, 1995)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3)(역사비평사, 1999) ▲역사와의 대화(대진대학교 출판부, 2000) 등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인문학자로서 앞으로 전공과 관련하여 토대(생신양식)부문을 구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가나 이데올로기 등 여러 가지 의식의 형태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부구조위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했는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사상적 내용도 함께 공부해 볼 계획이다.

박 교수는 지역연구에 있어 포천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내용이 연구주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지역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포천시의회정비 심사위원회 위원장 장경섭

포천시의회 議政費 심사 심사숙고 결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초의원들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된다.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0명의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달 21일 포천시장 추천 5명과 시의회 의장 추천 5명 등 총 10명으로 의정비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포천시장이 위촉했다.

심사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장경섭 포천시 리통합협의회회장을 초대 의정비심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장경섭 위원장을 만나 향후 의정비심사위원회 활동방향 등을 청취했다.

▲의정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무보수 명

젊고 유능한 인재 시의회 진출 기회제공 바람직 타 시군 및 물가인상 수준 등 적정수준 고려

예측의 시의원들은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을 못한 점이 있다. 이번 기초의원 유급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생계비 부담이 없다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시의회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를 시민과 시의원 양자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길 바란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포천시 재정자립도와 시민의 목소리를 감안하고자 한다. 유능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위원들과 심사숙고 해서 결정할 것이다.

▲의정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인가

지방자치법에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특별한 절차를 규정할 내용은 없다.

다만 의정비를 결정할 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결정해라는 규정이 있다.

포천시의회정비 심사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정비 책정과정을 지켜 보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다.

▲의정비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는가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최초로 만들어졌다. 금액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의정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민들을 만나보고 타 시군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다.

의원들은 포천시 발전의 큰 축이다.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유급화가 되면 의원활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별 한 사람씩 기초의원들이 있다. 이같이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폐단은 포천시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선거구만 생각하는 측면이 많았다. 이제 선거구가 광역화되고 유급화가 된 만큼 포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했으면 한다.

5.31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시의회 의원 활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부탁사항이 있다면

의정비 지급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만큼 의원들은 개인의 영리나 명예보다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시정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또 시의원 선거가 광역화되어 의원이 속한 읍면동 지역 행기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 주야 한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지방자치단체 토지문제 연구에 도움되는 자료 제공해야

사단법인 세계해동검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명지대학교 지정 체육관

명지대 무예전공 전문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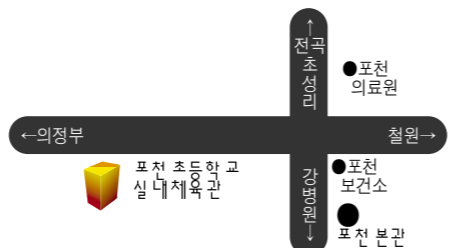
해동검도 포천본관

2주년 특별 기념행사

● 일시 : 2006년 4월 16일(일) 오후 2시부터

● 장소 : 포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532-5739)

● 주최 : 해동검도 포천본관



참가도장

의정부총본관(877-5739)/포천본관(532-5739)/양주덕계도장(859-5739)/남양주덕속도장(576-4458)/전곡도장(833-5739)/용인천리도장(333-9166)/광주오포도장(763-8483)/의정부호원도장(878-5777)/인천검단도장(032-564-4550)

